

<2016년 5월 1일 주일말씀>

연구해라. 인식을 제대로 해라

본 문 요한복음 5장 39절

『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인식과 연구’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주제는 ‘연구해라. 인식을 제대로 해라.’입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어렸을 때 잘못 인식한 것인데,
커서도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모르고 사니,
고통받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.
- ◆ 어렸을 때 잘못된 것을 배우고 인식하여

커서도 어렸을 때 잘못 인식한 것 그대로
어린 자들을 가르치고 인식시킵니다.

구약역사도 그러했고, 신약역사도 그러했습니다.

◆ 성경을 보면

특히 <부활, 재림, 휴거, 심판, 말세>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.

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리라서 제대로 가르치고 인식해야 됩니다.

이 중요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이고,
제대로 가르쳤어도 자기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
그릇된 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큰일입니다.

- ◆ 제대로 가르쳤어도 ‘잘 인식됐겠지.’ 하지 말고
잘 배우고 인식했는지 ‘파악’ 해 봐야 되고,
또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‘행하는 것’을 봐야 됩니다.

앞에서는 알았다고 해도
행동할 때를 보면 ‘자기 인식’ 그대로 행합니다.

- ◆ <사람의 뇌와 생각>, <눈과 귀>를 연구해 보면
생각보다 ‘착오’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.

- ◆ 사고를 당하겠다는 계시가 와도
불길하니 - 잘 안 믿고 인식을 안 합니다.

그러다 사고를 당한 후에 그제야 시인합니다.

- ◆ 사람의 뇌는 항상 ‘안 좋은 소리’나 ‘손해를 보는 것’은

불길하니 - 잘 안 믿고 인식하지 않습니다.

그러나 ‘좋은 소리’ 나 ‘유익을 보는 것’ 은
듣기에 좋으니 - 잘 믿고 인식합니다.

- ◆ 그러나 〈자기 인식〉과 〈실제〉는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.

〈자기 인식〉은 이러하지만,
〈실제〉는 저러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.

- ◆ 낙원도, 천국도, 황금성도 〈사람들의 인식〉과 〈실제〉는 다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〈세계지도〉에서 ‘각 나라의 섬들’ 을 보면,
점을 찍어 놓듯 표시해 뒀습니다.

그러니 ‘섬은 작다.’ 라고만 인식합니다.

특히 태평양 바다에 있는 〈하와이〉는
지도에 점 하나를 찍어 놔서 잘 안 보입니다.

- ◆ 직접 안 가 보고 어릴 때 지도상으로만 본 사람들은
‘하와이는 좋지만 규모가 작아. 우리 동네만 할까?
조금 돌아다니면 다 볼 수 있을 거야.’ 합니다.

- ◆ 그러나 막상 가 보면, 인식과 다릅니다.

세계 곳곳에서 하와이로 몰려드는데,
거기서 1년 동안 휴가를 즐겨도 족지 않습니다.

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<바다>에는 공간이 남아 있고,
<육지>도 꽉 차 있지 않습니다.

◆ 건너편 섬으로 가려면,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. <끝>

◆ 이와 같이 <사람의 뇌와 생각, 눈과 귀>는
생각의 실수를 잘하고, 잘못된 인식을 잘합니다.

결국 ‘자기 손해’입니다.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◆ <한국의 제주도>도 그러합니다.

직접 안 가 보고 어릴 때 지도상으로만 본 사람은
‘거기는 좁아. 육지를 보다가 제주도를 보니 답답해.
바람 쐬러 밖에 나가면 다니다 마는 정도겠다.
우리 동네만 할까?’ 합니다.

◆ 직접 가 보면,
차를 타고 한 시간 동안을 달려야 끝을 볼 수 있습니다. <끝>

◆ 현재 ‘제주국제공항’ 이 한 개 있는데,
또 ‘신공항’ 을 만든다고 합니다.

◆ <월명동 자연성전>도 직접 안 가 보고 말로 듣기만 한 사람들은
‘큰 집 정원만 하겠지?’ 인식합니다.

직접 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더러는 그렇게 인식합니다.

그러나 하루에 수만 명씩 와도
37년 동안 월명동 골짜기가 꽉 찬 날이 없습니다.

집회를 할 때는 한곳에 앉아 있지만,
실제로 돌아다녀 보면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니
정말 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.

◆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.

<작다고 인식한 사람>도 ‘실제’는 다릅니다.
일을 맡겨 보면, ‘크게’ 합니다.

- ◆ 조은이도 처음에 선생 대신 ‘섭리사 전체 단상’을 맡기며
섭리사를 성령의 역사로 끌어 나가게 할 때,
‘아무리 내가 제일 많이 가르치고 연단시켰지만
경험도 많지 않고 아직 어린데 잘할 수 있을까?’ 했습니다.

나를 대신하여 ‘운전대’를 맡기는 것이니,
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?

그래도 다른 길이 없고, 사람도 없으니 맡겼습니다.

그런데 <내 인식>과 <실제>는 달랐습니다.
조은이는 인원수에 상관없이, 항상 잘합니다.

오히려 청중이 많을수록 더 뜨겁고 능력 있게 외치며,
용광로가 되어 성령의 불을 전합니다.

선생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
하나님과 성령님과 전능자 성자가 같이 가르치셨고,
조은이 자신도 목숨 걸고 배우고 행하니 다릅니다.

어떤 것은 그 센터에서 선생보다도 더 잘합니다!

◆ 모두 그리 알고,

<작다고 인식하는 사람>도 인식과는 다르니
일을 맡기면서 계속 키워야 됩니다.

그래야 자기도 힘이 안 들고, 섭리사도 크게 됩니다.

◆ 범석 목사도 내가 가르치기는 했지만,

내 밑으로 세 번째 동생이라서

<자연성전 조경>을 맡겨 놓고도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.

그러나 사람이 없으니, 맡겼습니다.

이 일에는 ‘목숨이 위험한 일들’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.

선생이 할 때도

일을 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.

그런 일을 범석 목사에게 맡긴 것입니다.

범석 목사는 자연성전 일을 하면서,

30층 건물 위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.

그러나 계속해서 내게 배우고, 목숨 걸고 행하고,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시니

자연성전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.

◆ 이와 같이 일을 맡기면 자기 인식으로는 못 할 것 같지만,

실제로는 <삼위의 구상, 삼위의 함께하심>과 더불어

<자기 노력>으로 능히 합니다.

인식과는 다릅니다.

- ◆ 고로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<인식>을 바꾸어
자기 혼자 하지 말고 자꾸 일을 맡겨서 같이 해야 됩니다.

못 한다고만 생각하고

자기가 힘들어 쓰러질 때까지 안 맡기고 하다가
결국 힘들어 쓰러져 죽습니다.

‘맡기면 일이 더 많아진다.

맡기면 문제가 생긴다.

맡기면 오히려 신경 쓸 일이 생긴다.’ 하면서,

자기 혼자 하다가 ‘힘들다.’ 하지 말고,
자꾸 일을 맡겨야 됩니다.

<어떤 특정한 사람>과 비교해 보면 작지만,
<개성>으로 보면 모두 큰 사람입니다.

이를 알고 맡기면 교회도 부흥되고, 자기도 힘이 덜 들고,
섬리사 전체가 더 부흥되고 더 잘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사람의 <뇌와 생각, 눈과 귀>는 착오와 실수를 많이 합니다.

고로 잘못 생각하고, 잘못 계산하고,
잘못 보고, 잘못 듣는 것들이 많습니다.

- ◆ 착오하고 실수하는 자들은
<확인>하지 않고 <연구>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영적으로는 ‘삼위와 주와 일체’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- ◆ <그릇된 인식, 생각, 사고>로 인해
얼마나 많은 ‘실수’를 하고 ‘손해’를 보는지
- 시간이 지나서 아는 것도 있고,
- 행해야 하는데 안 해서 아예 모르고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.

그러나 제대로 인식하고 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를 입게 됩니다.

- ◆ <그릇된 인식>으로 모르고 있다가
그로 인해 해를 당하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.

어떤 것은 지옥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.
그제야 알고, 미쳐서 뛩니다.
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.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- ◆ 연못에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도
왜 빨리 차오르지 않는지 확인하고 연구해야 됩니다.

틈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.
- ◆ 이와 같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,
왜 생각보다 신앙의 차원이 안 높아지는지 연구해야 됩니다.

<평소 자기 행위>가 어떤지 연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.

결국 자기 무슨 때문에, 자기 생각과 행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
틈이 있어 그쪽으로 물이 새어 나가듯 하는 것입니다. <끝>

- ◆ 뭐든지 100% 해야 완전합니다.
틈이 있으면 물이 새어 나갑니다.
이와 같이 신앙에도 ‘틈’ 이 있으면, ‘공적’ 이 새어 나갑니다.
모순을 고치고, 자기 생각과 행위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.
- ◆ <착오와 실수>는 매일 작고 크게 일어납니다.
<해결 방법>은 ‘연구’이며, ‘철저한 확인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꼭 <연구>하면서 행해야 됩니다.
연구하지 않으면, 원시인이 되어 ‘시대의 잠’ 을 잡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- ◆ 의학도 연구하지 않았으면,
사람이 하찮은 모기한테 물려서 억울하게 죽습니다.

연구해서 모기를 떨하고,
또 예방접종을 하는 등 각종으로 대처하게 했습니다.

이 밖에도 의학을 연구하여
작은 병에서 큰 병에 이르기까지 치료하게 됐습니다.
- ◆ 과학도, 학문도, 사업도
각종 분야에서 <연구>하지 않았으면
인간은 걸어 다니거나 하면서
뛰는 짐승만도 못하여 짐승 뒤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.

- ◆ 각종 도구도 연구하여 만들었기에
음식을 해 먹고, 농사를 짓고,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.
- ◆ 각종 무기도 연구하다가 ‘수류탄’을 만들었고,
그 원리를 가지고 ‘원자폭탄’도 만들게 되었습니다.
- ◆ 걸어 다니다가 연구하여 <자전거>를 만들었고,
거기서 연구하여 <자동차>를 만들어
걸어서 며칠씩 갈 곳도 몇 분이면 가게 되었습니다.

거기서 더 연구하여 <비행기>를 만드니
아예 가기 불가능했던 곳도 몇 시간이면 가게 되었습니다.
- ◆ 쌀을 연구하니,
쌀을 가지고 ‘수백 가지 음식’을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. <끝>
- ◆ 선생도 어떻게 하면
<남자>가 ‘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’가 되어
최고의 사랑을 받는지 연구했습니다.

결국 ‘창조 목적’을 깨달아 인봉을 떼고,
<하늘>은 ‘남자, 신랑 격’
<땅>은 ‘여자, 신부 격’임을 깨달았고,
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‘삼위일체 앞’에
<사랑의 대상체>로 변화되고 만들어져야 됴을 깨달았습니다.

그러려면 땅에서 <육>이 ‘삼위 앞에 사랑의 삶’을 살아야
<영>도 변화되고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체’가 되어

영원히 천국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됨을 알았습니다.

◆ 또 기성인들은 <죽은 시체>가 살아나고

<육>이 ‘휴거’ 되어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,
이것을 두고 성경을 보면서 깊이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.

결국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,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.

곧 <육>이 아닌 ‘영 부활, 영 휴거’ 였습니다.

<육 부활, 육 휴거>라 함은

‘정신과 행실 부활, 삶의 부활, 삶의 휴거’ 였습니다.

<육>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

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삼위와 일체 되어 사랑의 삶을 살면
그로 인해 ‘정신 부활, 행실 부활, 삶의 부활’ 이 일어나고,
그로 인해 <영>도 변화되고 부활되고 휴거되는 것입니다.

<육>은 ‘땅에서 휴거의 삶을 사는 것’ 입니다.

◆ 휴거가 무엇인지, 어떻게 하면 휴거되는지

깊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연구했습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시어

결국 다 알고 행하게 되었습니다.

◆ 선생이 알고 행하니

다시 오신 성자께서 ‘내 육신’ 을 쓰고 행하셨습니다.

그리고 선생은 ‘이 시대에 첫 번째 신부’ 로 부활되고 휴거되었습니다.

알고 행한 대로 - 부활도, 휴거도, 심판도, 말세도, 이상세계도

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- ◆ 여러분도 이와 같은 <부활>을 이루었습니까?
그리고 <휴거>됐습니까?

그렇다면 - 자기도 했으니 ‘증인’입니다.

<증인>은 ‘증거’ 하기를 축원합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사람은 ‘자기 인식’ 대로 합니다.
고로 그릇된 인식을 가진 자는 ‘그릇된 인식’ 대로 합니다.
- ◆ 기성인들은 <부활, 휴거, 말세, 심판, 이상세계>에 대해
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.
고로 그들은 <부활과 휴거>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◆ 선생은 이미 50년 전에 ‘연구’가 끝났고,
그 후 섭리역사를 시작하고 38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.
근본은 ‘성경을 중심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가르침’입니다.
- ◆ 세계적인 과학자들은
지구 외에 지구 같은 곳이 또 있나 연구했습니다.

그러나 선생은 이에 대해서도 50년 전에 연구가 끝났고,
지구 외에는 지구 같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
고로 그것을 연구하기보다,

영원한 세계 <천국>에 가는 것을 연구하여

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외침으로

모두 <생명길>로 가면서 <천국>에 가게 하고 있습니다.

모두 ‘망상 신앙, 환상 신앙’ 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.

제대로 인식하고, 제대로 알고, 제대로 깨닫고,

실제로 행하면서 ‘실체 신앙’ 을 하게 합니다.

- ◆ 절대 ‘잘못된 인식’ 을 가지고 <망상>으로 살면 안 됩니다.

사람이 ‘인식’ 을 잘못하면, 거기에 미쳐서 행합니다.

제대로 알고, 제대로 인식하고,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.

- ◆ 기성에서는 <천국>에 대해서도 말하기를,

‘선영계, 낙원, 천국 외에는 없다.’ 합니다.

왜 그럴까요?

그 차원까지만 알고, 그 차원에서만 살기 때문입니다.

사람이 ‘초등교육’ 만 받으면, 그 이상은 모릅니다.

그 이상의 차원으로 가려면 ‘중등교육, 고등교육’ 을 받아야 됩니다.

- ◆ 종교 역사도 그러합니다.

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놓고,

꼭 시대마다 ‘선지자, 중심인물, 사사, 메시아’ 를 보내어

시대마다 ‘차원’ 을 높여 역사해 오셨습니다.

- ◆ 구약인들은 ‘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세’ 를 몰랐습니다.

그들은 <율법> 속에서 ‘하나님 앞에 종’ 으로 살았습니다.

더 차원 높은 세계를 알려면

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‘메시아 예수님의 말씀’ 을 듣고,
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.

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

“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

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나고,

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.” 했습니다.

◆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<신약 주관권>에 있는 자들은 ‘자녀 이상’ 은 모릅니다.

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‘구원자’ 를 알고,

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, 그 말씀대로 살아야

하나님이 뜻하신 ‘사랑 세계, 신부 역사’ 를 알게 됩니다.

그리함으로 <부활>도 ‘그 차원의 부활’ 을 이루게 되고,

<변화>도 ‘그 차원의 변화’ 를 이루게 되고,

<천국>도 ‘신부들에게 해당되는 세계’ ,

곧 ‘황금성 천국’ 을 상속받게 됩니다.

◆ 섭리역사에 와서 시대 주를 알고 사는 자들은

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<재림의 새 역사>를 하실 때

‘하나님이 보낸 자’ 를 믿고

‘그가 전하는 시대 말씀’ 을 듣고 행하면,

<육>은 ‘땅’ 에서 휴거되고

<영>은 ‘신부의 형체’ 로 변화되어

신부들이 사는 천국 최고 위치인 ‘황금성’ 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,

<휴거>되어 살고 있습니다.

- ◆ 시대 말씀을 들었으면 - ‘그 급’ 으로 살면서 실제로 행해야
<말씀>이 ‘실체’ 가 되어 실감 나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.

<하나님의 말씀>은 ‘망상과 추측’ 아 아닌 ‘실제’ 입니다.
고로 행할 때, ‘실체’ 가 되어 ‘실체’ 를 나타내게 됩니다.
행하면, 그대로 이루어집니다.

- ◆ 그리고 자기가 알고 이루고 있으니,
모두 ‘증인’ 이 되어 외쳐야 됩니다.

그러나 증거할 때도 그냥 막 하면 실패합니다.

어떻게 하면 잘 증거하여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
제대로 알게 할 것인지, <연구>해야 됩니다.

성경에 ‘입의 막대기, 입의 검’ 이라고 했습니다.

<입의 검>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<증거>도

제대로 하면 생명을 살리고,

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.

- ◆ 물론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도
<듣는 자>가 잘못 인식하고 책임을 못 하여 불신하기도 합니다.

그러나 <가르치는 자>가

그릇되게 하여 생명을 실족시키기도 합니다.

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됩니다!

<생명의 말씀>은 다 졌으니,
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하고 가르칠지 연구하여
<입의 막대기, 입의 검>을 잘 사용하면서
권위 있게 잘 증거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이 시대에 ‘진짜로 보낸 자’가 나타나면
하나님께서 <내적>으로 <외적>으로 행하시니,
<역사의 주관권 안>에도 징조와 표적이 일어나고
그에 맞춰 <민족과 세계적>으로도 징조와 표적이 일어납니다.

하나님은 ‘믿는 주관권 안’에서도 행하시지만,
‘이방’에도 같이 행하십니다.

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‘뉴스’로 증거하십니다.
고로 ‘뉴스’는 다 봐야 됩니다.

- ◆ 1978년에 하나님께서 <성약 섭리역사>를 시작하실 때,
민족과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봐요.

너무 많습니다.

세상 말세라고 했던 1999년~2000년도까지
민족과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봐요.

그리고 마야 달력이 끝나는 2012년은 어떤 의미인지,
말씀으로 다 풀어 주었으니 확실히 인식하고 증거해요.

또한 성자가 떠나시기 전, 2014년 연말에는
왜 늘 있었던 ‘연말 심판’이 없었는지,

다 말씀으로 가르쳐 줬으니 알고 증거해요.

- ◆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,
세상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,
그때마다 가르쳐 줬으니 오늘은 다 말을 못 합니다.

증거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 꼭 연구하고 증거해야 됩니다.

날개로 증거하기보다, 모두 하나로 묶어서
〈책〉으로 만들어 증거할 사람 있습니까?

있으면,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명을 ‘임명’ 하겠습니다.

억지로 하지 말고 ‘때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’을 증거해야
모두 믿고 따라오게 되고, 하나님도 더욱 역사하십니다.

- ◆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
“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
너희가 〈날씨〉는 분별할 줄 알면서
〈시대의 표적〉은 분별할 수 없느냐.(마 16:3)” 했습니다.

- ◆ 선생은 간헐어도 여기서 ‘증거하는 책 150권’을 썼습니다.
설교 책, 잠언 책 모두 다 ‘증거물’입니다.
그리고 코치하고 멘토링 한 것이 3만 가지가 넘습니다.

- ◆ 증거해야 -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.
모두 임명하니, 증거하기 바랍니다.

- ◆ 지금도 ‘하나님이 개인·민족·세계에 행하시는 일들’이
〈뉴스〉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.

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, 뉴스를 보고 깨닫고 증거해야 됩니다.

- ◆ 무서워서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떨면서 삽니다.

하나님이 이미 ‘악인들을 심판’ 하여 세상에 없는데도 증거하지 못하고 입을 막고 삽니다.

- ◆ 섭리사를 악질적으로 음모하고 해하는 자들 중에서 아직 ‘육신’ 이 살아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.

그 ‘영’ 은 이미 ‘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’ 에 갇혔고,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.

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의인에게 상을 베푸십니다.

- ◆ <봄>이 오면 ‘식물’ 만 소생하지 않습니다.

- ‘모든 만물들’ 이 다 소생하고,
- ‘사람들’ 도 달리 행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.

이와 같이 <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메시아>가 오면,
<민족> 뿐 아니라 <전 세계 역사> 가 새롭게 돌아옵니다.

표가 나게 ‘표적’ 이 일어납니다.

- ◆ 때도 아닌데, 자기가 메시아라고 억지로 우기는 자들이 있습니다.
그들이 출현한 때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압니다.

<겨울철>에 온실에서 식물을 키우고 ‘봄’ 이 왔다고 합니다.

자기가 임의로 <봄>을 만들고 <가을>을 만드는 자들은

유혹하는 자로서 ‘사망의 왕’ 이 되어 ‘사망’ 에 거합니다.

- ◆ 이단은 안 되는데도, 아닌데도 찢어 붙여서 억지로 성경을 풀고, 거기에 맞춰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기 식으로 행합니다.

그런 자들의 영은 모두

‘지옥의 안방, 가장 뜨거운 곳’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성경을 억지로 풀다가는 다 망합니다.

- ◆ 모르면 망하고,
모르면 열심히 해 놓고서도 천국에 못 갑니다.

예수님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하고도
모르니 ‘기다린 새 역사’ 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신하고
망하는 길로 갔습니다.

그렇게도 잘난 척, 아는 척하며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하니,
그냥 놔두고 지켜봤습니다.

결국 ‘영원한 함정’ 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

- ◆ <섭리역사>는 ‘하나님의 역사’ 이고,
<보낸 자>는 ‘시대 주인’ 이기 때문에
때에 따라 ‘민족과 세계적’ 으로 징조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.

억지로는 안 됩니다.

그러한 <징조와 표적>을 보고 ‘하나님이 보낸 자’ 를 알게 됩니다.
고로 연구하여 잘 증거해야 됩니다.

◆ 선불리 행하면 안 됩니다. 정말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.

선불리 행하면, ‘굴속에 갇힌 토끼’도 못 잡고 놓치듯 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

◆ ‘굴속에 갇힌 토끼’를 잡을 때도 연구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면,
<자기 인식>과 <실제>는 달라서 실패합니다.

사람만 잡으려고 계획하는 줄 압니까?

토끼도 도망가려고 죽기 살기로 계획합니다.

◆ 어떤 토끼는 사람의 두 다리 밑으로 빠져나가고,
어떤 토끼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도망치고,
어떤 토끼는 물고 도망잡니다.

어떤 토끼는 털만 잡고 들어 올리다가

털만 쏙 빠져서 몸은 도망가 버리고,

어떤 토끼는 몽둥이를 맞고 쓰러진 척하다가

기회를 보고 뛰어 도망잡니다.

어떤 토끼는 몽둥이를 맞고 다리를 절면서 도망잡니다.

어떤 토끼는 사람의 가슴에 확 뛰어올라

사람을 놀라게 하고 뛰어 도망잡니다.

토끼에 대해 <연구>하지 않고 사냥하니 실패한 것입니다.

◆ <자기 인식>과 <현실>은 다릅니다.

고로 아예 연구하여 - 돈이 들더라도

굴 입구에 ‘망’을 쳐 놓고 굴에 들어가서 잡아야 됩니다.

그러면 다 잡습니다. <끝>

- ◆ 선불리 하여 ‘굴속에 갇힌 토끼’를 놓치면,
드넓은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.

그때는 토끼가 잡혀 쥐야만 잡을 수 있고,
혹은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됩니다.

일도 그러하고, 가르침도 그러하고, 증거도 그러하고,
전도도 그러하고, 새벽기도도 그러하고, 117기도도 그러합니다.

할 때 확실히 해야 - ‘굴속에 들어온 토끼’를 잡듯 쉽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6>

- ◆ ‘굴속에 갇힌 토끼’를 굴 입구에서 놓치고,
토끼가 산을 넘어갔을 때 쫓아가듯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.

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

고로 아예 할 때 제대로 연구하고 확실히 행해야 됩니다.

못 박듯 한 번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. <끝>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잘못된 인식으로는 ‘착오’가 일어나고 ‘실수’하고
무조건 하다가는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니,
항상 <확인>하고 <연구>하면서 해야 됩니다.

그러면 쉽게 하고, 불가능한 것도 얻게 됩니다.

- ◆ 연구하여 확대해서 하면 ‘수만 배 더 큰 것’도 얻게 됩니다.

〈작은 돛단배〉를 보고 연구해서
결국 〈큰 군함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.

- ◆ 어떤 것은 〈작은 것〉으로 시작했는데
연구하니 ‘1300배 큰 것’을 얻게 됐습니다. 될까요?

답은 - 〈성자바위〉입니다.

〈작은 수석〉을 줍다가 연구하고 눈이 떠져서
결국 〈성자바위〉까지 얻게 됐습니다.

이것은 성자 떠나시기 전, 큰 선물이었습니다.

이와 같이 연구하여 확대해서 하면

수십, 수백, 수천, 수만 배 ‘큰 것’을 얻게 됩니다.

- ◆ 〈자연성전 조경〉도 ‘개인 집의 작은 조경’을 보고 연구하여
하나님의 구상에 따라 크고 웅장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.
- ◆ 또 돌 조경을 할 때 〈큰 바위〉를 갖다가 쌓는 것이 불가능한데,
연구해서 ‘160톤 바위’까지 갖다 놓게 됐습니다.
- ◆ 하나님의 뜻인 것은 합당하니, 연구해서 할수록
하나님도 더욱 함께하시고, 해 놓고도 미련이 없습니다.
- ◆ 자연성전도 하나님의 구상에 따라서 계속 연구하니

수만 배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고,
결국 ‘하나님의 구상’ 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!

- ◆ <연구>는 ‘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’ 이라고 했지요?
그래서 <연구>는 ‘차원’ 을 높이면서 해야 됩니다.

고로 하나님의 역사도 <종급>에서 더 차원 높이고 연구하여
<하나님의 자녀>를 만들었고,
거기서 더 차원 높이고 연구하여 <하늘 신부>를 만들었습니다!

- ◆ <연구>는 차원을 높이게 합니다.
<연구>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게 합니다.
<연구>는 확대하여 큰 것을 이루게 합니다.
<연구>는 ‘새로운 것’ 을 발견하게 합니다.
<연구>는 ‘이미 있는 것’ 을 더 좋게 만들게 합니다.
<연구>는 ‘최고 좋은 방법’ 이 보이고 확인되게 합니다.
연구하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.
그러니 모두 연구하세요!

- ◆ 하나님은 사람에게 ‘연구하는 축복’ 을 주셨습니다.
고로 ‘뇌’ 를 주시고 ‘생각’ 하게 하셨습니다.
그로 인해 ‘차원’ 을 높이게 하셨습니다.

에디슨도 연구했습니다.

만일 에디슨이 ‘전기’ 를 연구하지 않았으면,
지금도 사람들은 ‘호롱불’ 을 잡고 다니며 살았을 것입니다.

<신앙>도 <자기 인생>도 연구하기 바랍니다.
<휴거의 삶>도 연구하기 바랍니다.

- ◆ 시간은 ‘표준 시계’를 놓고 맞추듯
중심을 ‘시대 말씀과 삼위의 생각’에 놓고 맞추면서,
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놓고, 자기 삶을 놓고
<인식>을 바로 하고 <연구>하면서 행하기 바랍니다!

- ◆ <자기 인생>도 연구하고 더 개발하여
10배, 100배 더 위대하게 만들기 바랍니다!

- ◆ <시대 말씀>도 최고 이상적으로 만들어 졌으니,
각자 연구하고 전하여 수백만 명씩 물려들게 하기 바랍니다!

연구하고 행하는 자에게
하나님의 능력도, 성령의 불도, 감동도 뜨겁게 임하게 됩니다.

- ◆ 또한 모두 휴거됐으니 어떻게 하면 더 차원을 높이는지
<휴거의 삶>을 연구하여 무한하게 차원을 높이기 바랍니다!

- ◆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,
설교도, 강의도, 증거도, 기도도, 관리도, 교회 운영도,
섭리 행사도, 하늘 예술도 각종으로 연구하여
자기도 날마다 차원을 높이며 희망으로 살고,
이 시대 수많은 무리들도 구원하고 휴거시키기를 축원합니다.

- ◆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까요? 성령의 말씀입니다.

“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가까이하는 것도 연구하고,
주가 너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연구해라.

순간만 후다닥하지 말고, 꾸준히 해라.

그래야 하늘과 가까워지고, 주도 너를 기억한다.”

◎ 말씀 마쳤습니다.